한국 수도권 가계의 자산배분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

– 부동산 및 원화자산에 치우친 자산배분 인식을 중심으로 –

2019. 11.

MetLife

현대경제연구원

Executive Summary

메트라이프생명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9~10월 두 달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수도권 가계의 자산배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1] 응답자 중에는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의 중산층 및 부유층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한국 가계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원화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각하여,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자산배분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금융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은 '60대' 80.7%, '50대' 76.3%, '40대' 72.5%, '30대' 49.2%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부동산 비중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젊은 연령대일수록 스스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산배분 비율로 조정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에서는 47.2%만이 자산배분 조정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30대에서는 77.3%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장기적으로 한국 가계도 금융자산 중심의 자산배분 구조로 재편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보유자산을 금융자산 등으로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금융시장이 보다 성숙되고 국민들의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 선진국들과 비교한다면 자산배분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수도권 가계의 금융자산 대 비금융자산[2] 비중은 20:80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 기준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 대 비금융자산의 비율이 64:36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심각한 차이로 볼 수 있다. 일본은 2000년도를 기점으로 금융자산이 비금융자산 비중을 넘어섰으며 최근 선진국형 자산배분 구조[3]가 완성되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개도국형 자산배분 구조[4]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가계의 원화자산에 대한 편중도는 부동산 자산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여, 이중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외화자산 보유자는 13.3%(133명)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외화자산 비중도 9.6%밖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가능성이 높고,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5]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처럼 부동산 및 원화자산에 편중돼 있는 한국 가계는 외부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보유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노년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

---

[1] 설문조사는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오차의 범위는 ±3.1%p임.

[2] 부동산에 자동차, 귀금속 및 고가 내구재 등이 포함.

[3] 선진국형 자산배분 구조: 경제 성장과 국토개발이 낮게 유지되는 선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보다 더 발달하면서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낮아지고 주식 등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 또는 자산구조.

[4] 개도국형 자산배분 구조: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이 빠르게 일어나는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 또는 자산구조.

[5]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6년~2020년 2.5%에서 2021년~2025년 2.1%, 2026년~2030년 1.9%, 2031년~2035년 1.7%로 점진적 하향 추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금융이해력, 소득 및 보유자산액이 높을수록 외화 금융자산 보유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미 외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외화 금융자산을 유지 또는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화 금융자산의 취득 목적으로는 위험회피 목적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30~40대에서는 투자 목적이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외화 금융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외화자산에 투자할 만큼의 여유자금이 없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51.8%로 가장 많았다. 매달 소액으로 적립해 갈 수 있는 외화 금융상품이 있을 경우 희망하는 '월 납입액'과 '목표 기간'은 평균 희망 '월 납입액'은 29.1만원, '목표 기간'은 4.7년으로 조사되었다. 5년 단위로 본다면 '5년 미만'이 49.7%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5-10년 미만'은 34.2%, '10년 이상'은 16.1%에 불과했다.

상당수 한국인들은 외화 금융자산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은퇴 이후까지 고려한 금융상품 가입을 고려하기보다 자녀 교육비, 고가 내구재 마련 등 중기적 지출목표에 맞춘 중기 저축성 상품 가입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한국 가계의 부동산 및 원화자산 편중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한국 자본시장이 개방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한국 가계는 여전히 개도국형 자산배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자산과 외화자산을 고려한 자산배분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가계가 자산관리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필수 지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융자산 비중 확대와 함께 안정성은 더욱 보장되면서 원화와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은 외화 금융자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가계의 노년 빈곤을 막기 위한 첫걸음은 자산배분에 대한 한국 가계의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는 데서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 세부 내용은 메트라이프생명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한국 가계의 자산배분 구성은 부동산 및 원화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각하여 금융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시급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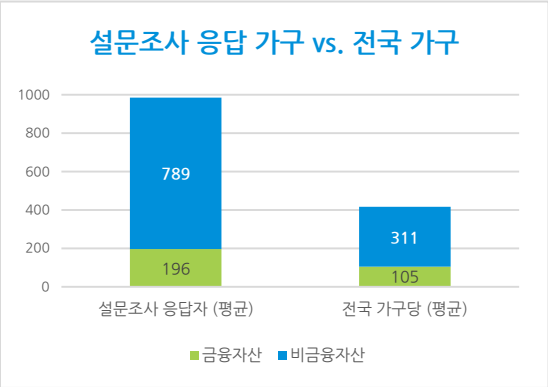
메트라이프생명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9~10월 두 달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산배분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총자산과 금융자산 평균은 각각 9억 8,510만원과 1억 9,567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융자산 비중은 약 20%로 나타났다. 나머지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80%였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6]한 전국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4억 1,573만원)과 금융자산(1억 512만원)과 비교한다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약 2.37배, 금융자산은 약 1.86배가 높았다. 이번 조사가 전국 평균보다 가계소득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자산배분 관련 설문조사에 응할 정도로 자산관리에 관심이 높은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의 중산층 및 부유층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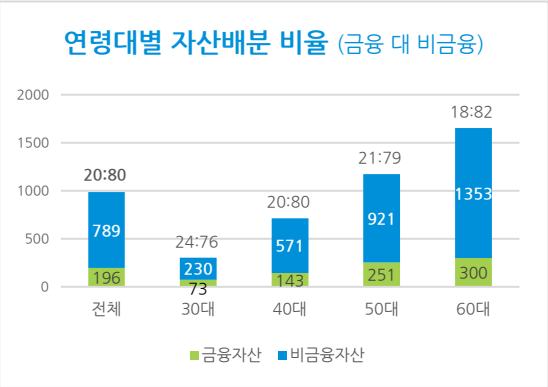
소득의 축적, 주택가격 상승 및 상속·증여 등 어느 정도 재산형성 과정을 거친 40대 이상으로 갈수록 비금융자산 비중도 크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노년층에 가까울수록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보다는 유동성 자산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금융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백만원)



주1 : 응답자 수(N)=1000
주2 : '전국 가구당 (평균)'은 2018년 통계청 발표 자료

(단위: 백만원)



주1 : 응답자 수(N)=1000

[6]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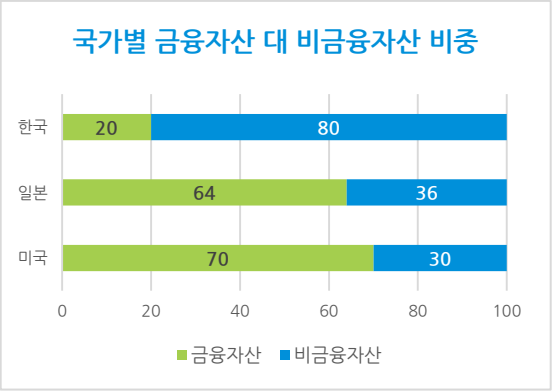
한국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외부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젊은층 중심 보유자산 다변화 노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

국내 부동산에 편중된 한국 가계의 자산배분 구성은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의 통화 분산에 대한 인식 역시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보유한 금융자산 대 비금융자산 비율은 20:80으로 나타나 여전히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한국 가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가계와 비교할 때 개도국형 자산배분 구조에 아직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은 경제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펀더멘털 측면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부동산 수요 감소라는 수급 측면에서 볼 때, 1992년 일본 부동산 버블붕괴 시점과 유사하여 향후 전개 방향도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부동산 및 경제의 장기 침체 국면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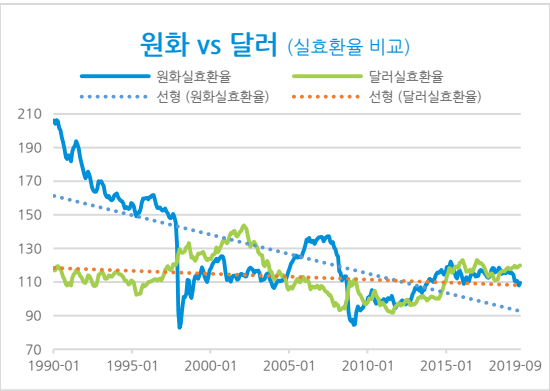
따라서, 지금처럼 저유동성 부동산과 원화자산에 편중돼 있는 한국 가계는 외부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보유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노년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부동산 및 원화자산에 치중된 자산배분 구성에서 금융자산 비중 확대와 함께 안정성은 더욱 보장되면서 원화와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낮은 외화자산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자산가격 변동 위험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30년간 원화와 달러의 (명목)실효환율(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8] 변동추이를 비교해보면 원화보다는 달러의 변동성이 훨씬 낮았으며, 두 통화간 상관계수는 '0.046'[9]에 불과해 분산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주1 : 미국과 일본은 2017년말 기준

(2010년 100기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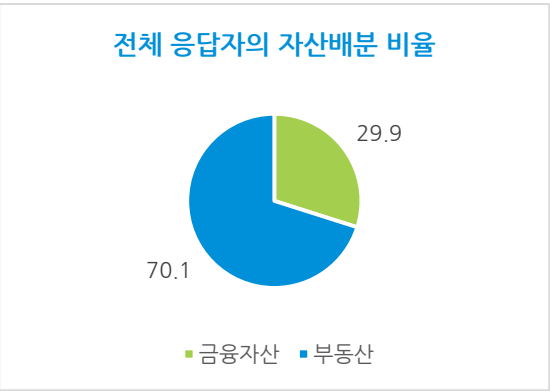
[7]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7~1949년 3년간 출산율 급증에 따라 단카이(團塊)세대(일본의 베이비부머)가 형성됐으며, 단카이세대가 40대 중반이 되어 재산형성이 마무리되는 1992년 부동산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한 후 곧바로 버블이 붕괴됐음. 이후 일본경제는 2018년까지 약 30년간 평균 1% 성장에 그쳤고, 1인당 GDP도 3만 달러대에 머물며 정체를 보이고 있음.

[8] 명목실효환율이란 2국간 통화의 상대가격이 아닌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교역량 등으로 가중 평균한 환율로서 자국 화폐가 전체 교역상대국 화폐에 비해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을 뜻함. 상대적 인플레이션 차이는 고려하지 않으며 100보다 높으면 화폐 가치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함. (2010년 100기준)

[9] 상관계수 1은 완전한 동조화, 상관계수 0은 완전한 비동조화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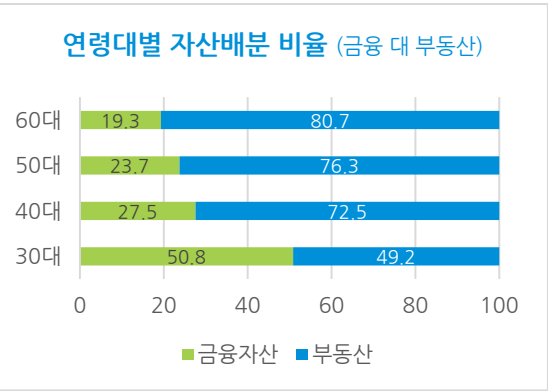
긍정적 신호는 젊은 연령대일수록 부동산에 치우친 자산구성을 개선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대별 '금융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은 '60대' 80.7%, '50대' 76.3%, '40대' 72.5%, '30대' 49.2%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부동산 비중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국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수혜를 별로 받지 못했다고도 이해될 수 있다.

평균(%)



주1 : 응답자 수(N)=1,000
주2 : 금융자산 + 부동산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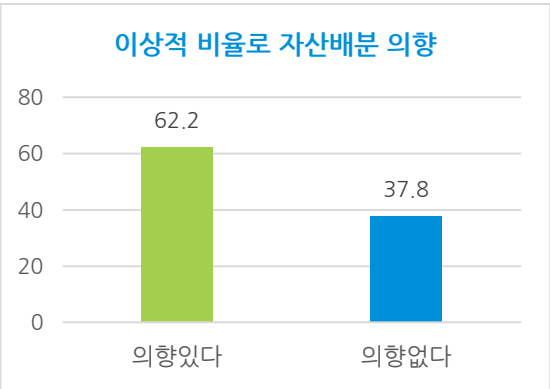
평균(%)



주1 : 응답자 수(N)=1,000
주2 : 금융자산 + 부동산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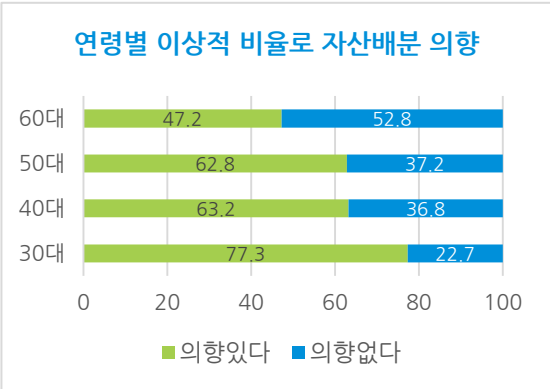
또한, 응답자들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구성 비중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은 59.9%, '금융자산'은 40.1%라고 답해 현재의 자산배분 비율이 합리적 수준은 아니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이상적 비율'은 30대('부동산'58.5%, '금융'41.5%), 40대('부동산'59.4%, '금융'40.6%), 50대('부동산'60.0%, '금융'40.0%), 60대('부동산'61.4%, '금융'38.6%)가 별로 차이가 없었다. 30대는 아직 무주택자 비율이 높아 현재 금융자산 비중(50.8%)이 이상적인 비중(4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가계도 금융자산 중심의 자산배분 구조로 재편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주1 : 응답자 수(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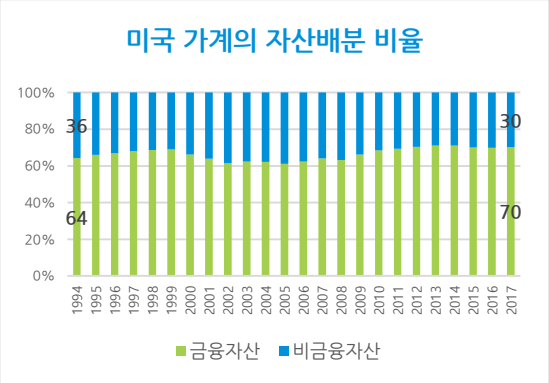
주1 : 응답자 수(N)=1,000

한국은 아직 개도국형 자산배분 구조에 머물러 있지만, 일본은 2000년도를 기점으로 금융자산 비중이 비금융자산을 넘어선 이후 최근 선진국형 자산배분 구조가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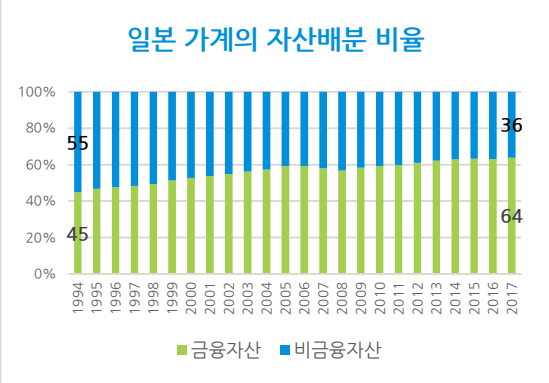
한국에서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보유자산을 금융자산 등으로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금융시장이 보다 성숙되고 국민들의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과 일본에 비한다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시장과 부동산 등 실물시장의 호황 사이클에 따라 비중 변화가 발생하나,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금융자산 대 비금융자산 비중은 대략 7:3~6:4의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10] 일본은 통계 작성 시작 시점인 1994년 이후 최근까지 금융자산 비중이 꾸준히 증가되어 2017년말 기준[11] 금융자산 대 비금융자산의 구성비는 64:36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 수도권 가계의 금융자산 대 비금융자산 비중 20:80과 비교한다면 현격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92년 부동산 버블붕괴 이후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금융자산 중심의 자산배분으로 변화되었다.[12] 2000년을 기점으로 금융자산 비중이 비금융자산을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형 자산배분 구조가 정착되었다.



자료 : 미국 Federal Reserve Bank
주 : 년도말 기준



자료 : 일본 내각부
주 : 년도말 기준

[10] 미국 또는 일본 사례와 비교할 경우, 국가마다 부동산 분류 기준이 상이하므로 통상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하기보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포함된 비금융자산으로 구분된 통계값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임.

[11] 일본의 경우 2017년도말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임.

[12] 일본은 부동산 버블붕괴 이전 가계의 부동산 비중이 80% 수준이었으나, 1992년 버블붕괴로 부동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비중이 55%까지 낮아졌음. 이후 금융자산 위주의 자산 투자가 일반화되면서 현재의 비중에 이르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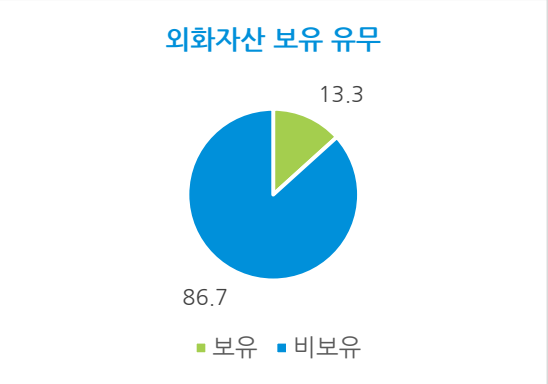
한국인들은 부동산에 더해 원화자산에 편중된 자산배분 구성으로 이중의 자산가격 변동 위험을 안고 있어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간 자산배분뿐만 아니라 원화자산과 외화자산 간 자산배분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원화자산에 대한 편중도는 부동산 자산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외화자산 보유자는 13.3%(133명)에 불과했으며, 외화자산 보유 응답자도 외화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밖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리스크 발생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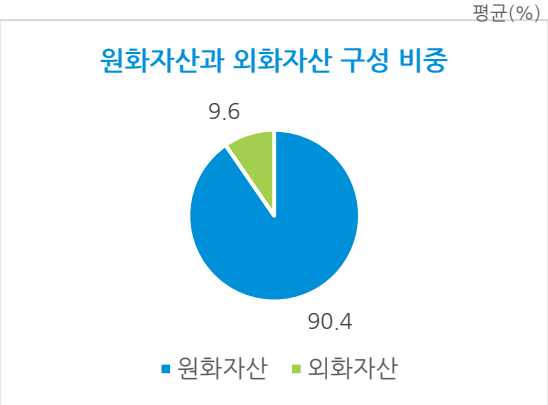
한국은 저금리·저성장 기조 고착화에 더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가능성, 중국 위기 발생시 전이 효과,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동력 약화 등 잠재적인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화 금융자산으로의 자산비중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주1 : 응답자 수(N)=1,000

평균(%)



주1 : 응답자 수(N)=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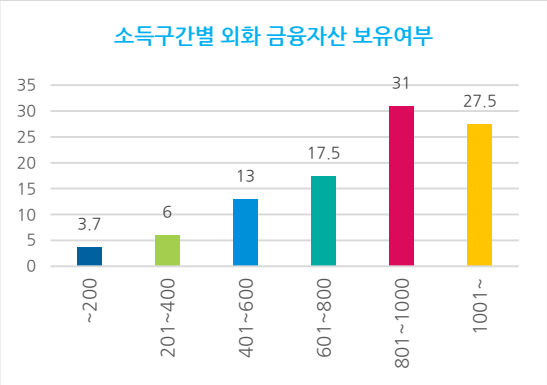
금융이해력, 소득 및 보유자산액이 높을수록 외화 금융자산 보유를 선호하고 있으며, 외화 금융자산 보유액을 유지 또는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우세

총자산 규모별로 보면 '1-5억 미만' 4.7%, '5-10억 미만' 11.2%, '10-20억 미만' 18.0%, '20억 이상' 30.3%가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해 총자산이 많을수록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금융자산 보유액이 높을수록 외화 금융자산 보유가 두드러졌다. 소득이 높고 고액자산가일수록 위기 발생 시를 대비한 리스크 분산이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자, 저액자산가일수록 외부충격에

따른 자산가격 변동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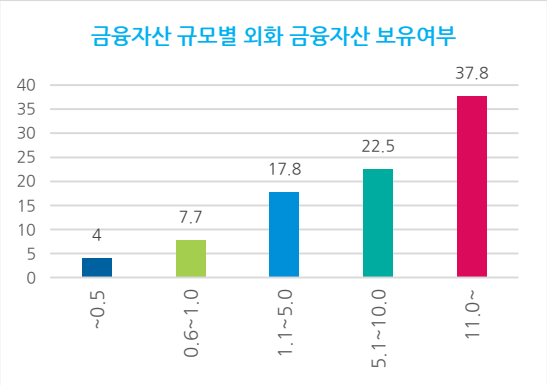
금융이해력에 따라서도 외화자산 분산 정도에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해력이 매우 낮다는 계층' 4.0%, '약간 낮다는 계층' 8.5%, '약간 높다는 계층' 24.3% 등으로 금융이해력이 높을수록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만원)



주 : 응답자 수(N)=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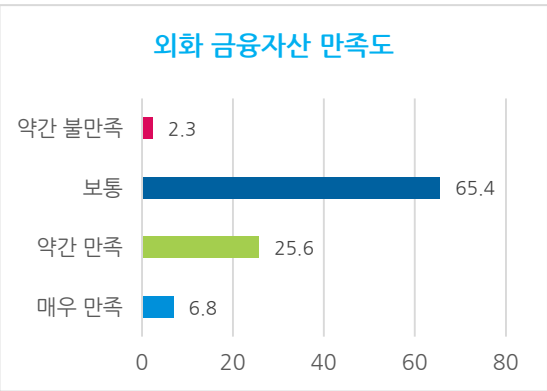
(%, 억원)



주 : 응답자 수(N)=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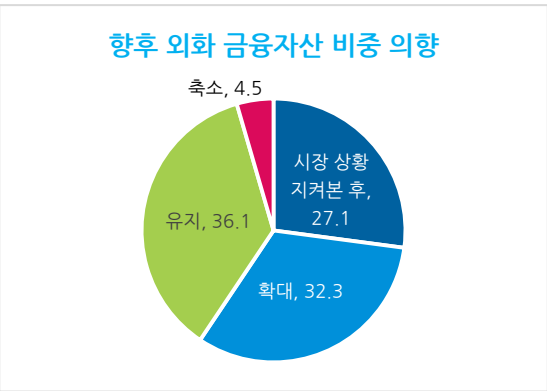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화 금융자산에 만족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보통' 65.4%, '약간 만족' 25.6%, '매우 만족' 6.8% 등의 순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외화 금융자산 보유자의 68.4%('보유비중 확대' 32.3%, '유지' 36.1%)는 향후에도 계속 외화 금융자산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27.1%나 됐으며, 외화 금융자산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5%에 불과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인들의 외화 금융자산 보유 비중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주 : 응답자 수(N)=1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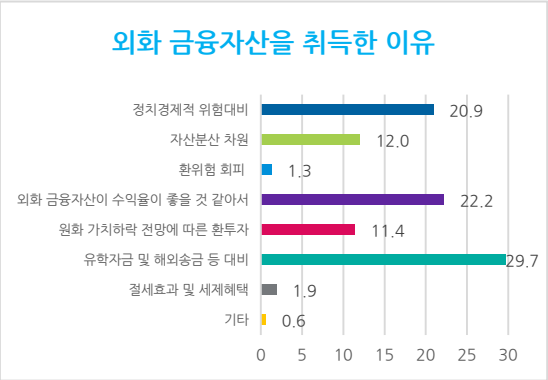


주 : 응답자 수(N)=133

현재 외화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외화 금융자산 취득 이유는 '정치경제적 위험 대비'(20.9%), '자산분산 차원으로'(12.0%), '환위험 회피 차원'(1.3%) 등의 위험회피 목적이 34.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외화 금융자산이 원화 금융자산보다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서'(22.2%), '원화가치 하락 전망에 따른 환투자 기회 포착'(11.4%) 등의 투자 목적이 33.6%였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유학자금 및 해외송금 등을 대비해서'라는 거래적 목적이 29.7%로 가장 높았다. 외화 금융자산을 취득한 이유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60대에서는 위험회피 목적이 가장 많았던 반면 30~40대에서는 투자 목적이 더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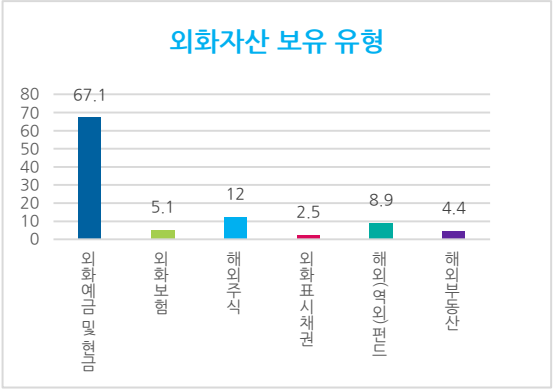
외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외화예금 및 현금'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외주식'(12.0%), '해외(역외)펀드'(8.9%), '외화보험'(5.1%), '해외부동산'(4.4%), '외화표시채권'(2.5%) 등의 순이었다. 2개 이상 유형의 외화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외화 금융자산 유형을 질문했을 때는 '해외주식' 30.0%, '해외부동산' 25.0%, '외화예금 및 현금' 20.0%, '외화보험' 10.0% 등의 순으로 답변하였다.

(%)



주1 : 사례수(N)=158, 보유 유형 복수 응답
주2 : 해외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 모두 외화 금융자산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고 답함.

(%)



주 : 사례수(N)=158, 보유 유형 복수 응답

많은 한국인들은 외화 금융자산을 취득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의 재무설계나 자산의 통화분산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많이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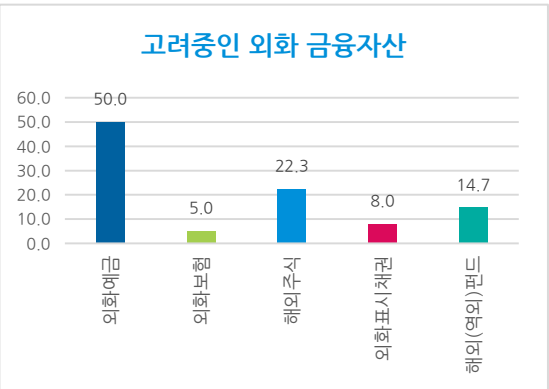
외화 금융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외화자산에 투자할 만큼의 여유자금이 없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51.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외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 부족'(26.3%)과 '왠지 불안해서'(7.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직까지 많은 한국인들은 외화 금융자산이라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으며, 외화 금융상품의 종류와 각 특징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화 금융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응답자 중 27.5%도 향후 외화 금융자산 취득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취득을 고려 중인 외화 금융자산으로는 '외화예금'(50.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외주식'(22.3%), '해외(역외)펀드'(14.7%), '외화표시채권'(8%), '외화보험'(5.0%) 등의 순이었다.

현재 외화 금융자산을 갖고 있지 않지만 향후 외화 금융자산 취득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외화 금융자산 취득을 고려하는 이유는 '외화 금융자산이 원화 금융자산보다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서'(27.9%), '원화가치 하락 전망에 따른 환투자 기회 포착'(16.9%) 등의 투자 목적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산분산 차원으로'(23.3%), '정치경제적 위험 대비'(18.3%), '환위험 회피'(2.9%) 등의 위험회피 목적은 44.5%로 투자 목적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유학자금 및 해외송금 등 대비'는 5.5%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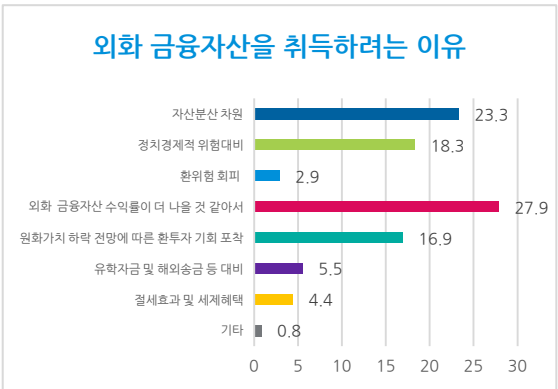
'자산분산 차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총자산 20억 이상 계층'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화 금융자산이 원화 금융자산보다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30대'가 33.3%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정치경제적 위험 대비'라고 답한 응답자는 '60대'가 26.5%로 가장 높았으며, '원화가치 하락 전망에 따른 환투자 기회 포착'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0대'가 22.2%로 가장 많았다.

(%)



주 : 응답자 수(N)=2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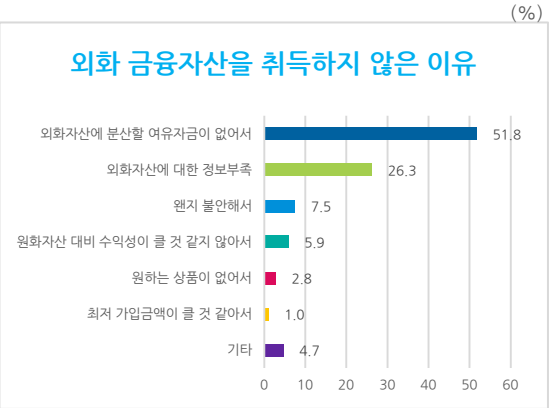
주 : 응답사례 수(N)=344, 복수 응답 가능

현재 외화 금융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매월 소액으로 적립해 갈 수 있는 외화 금융상품이 있다면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 앞서 외화 금융자산을 현재 갖고 있지 않지만 향후 취득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수(238명, 27.5%)보다 더 많은 응답자들(310명, 35.8%)이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많은 한국인들은 상당액의 자금을 일시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면 외화 금융자산 취득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들이 희망하는 '월 납입액'과 '목표 기간'은 평균 희망 '월 납입액'은 29.1만원, '목표 기간'은 4.7년으로 조사되었다. 희망 '목표 기간'을 5년 단위로 본다면 '5년 미만'이 49.7%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5-10년 미만'은 34.2%, '10년 이상'은 16.1%에 불과했다.

아직 상당수 한국인들은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은퇴 이후까지 고려한 금융상품 가입을 고려하기보다 자녀 교육비, 고가 내구재 마련 등 중기적 지출목표에 맞춘 중기 저축성 상품 가입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산의 통화 분산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역시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교육 등 금융이해력[13]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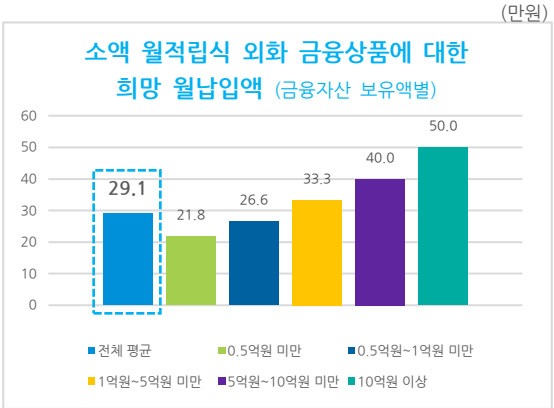
최근 금융업계에서 금융상품 영업 시 판매마진이 높은 상품을 팔려고 하기보다 고객의 재무적 상황과 목표에 맞춰 금융상품을 추천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또한, 몇몇 생보사와 은행 등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어린이나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경제·금융교육 활동을 펼치는 것 역시 고무적으로 보인다.

(%)



주1 : 응답자 수(N)=867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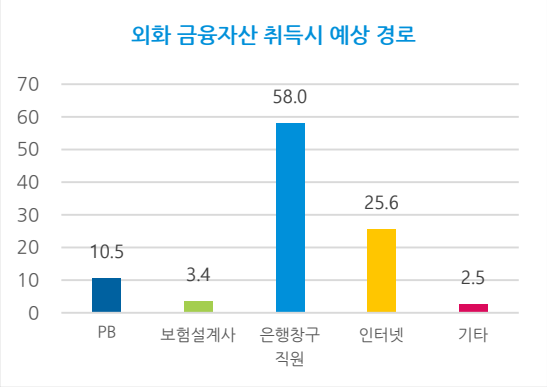
주 : 응답자 수(N)=310

현재 외화 금융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응답자 중 27.5%는 외화 금융자산 취득 시 예상 경로로 '은행창구 직원(58.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외화 금융자산 중 '외화예금' 취득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터넷(25.6%)'을 선택한 비율도 '은행창구 직원' 다음으로 높았다. 그밖에 'PB'와 '보험설계사'는 각각 10.5%와 3.4%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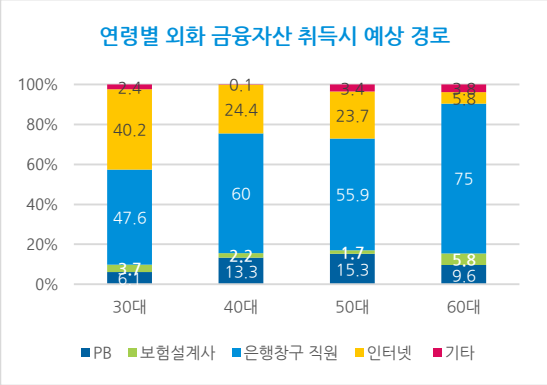
'60대'의 75.0%가 '은행 창구직원'이라고 답했으며, '금융자산 1~5억 미만' 계층의 62.9%도 '은행창구 직원'이라고 대답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 계층의 37.5%, '총자산 20억 이상' 계층의 27.8%는 'PB'라고 응답했다. '30대'의 40.2%는 '인터넷'이라고 답해 젊은 연령대일수록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실시한 「2018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OECD 평균(2015년, 64.9점)보다 다소 낮았으며, '금융지식'보다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 부문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저소득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이해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상당수 한국인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직원(또는 PB)과의 대면 상담을 통해 금융자산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많은 점포를 갖춘 대형 금융그룹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이나 신뢰가 금융자산 취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주 : 응답자 수(N)=238



주 : 응답자 수(N)=238

각 가계(개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 자산배분 상품을 찾기 위해 전체 금융업권의 상품들을 객관적 시각에서 비교·분석하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

달러보험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153명(15.3%)만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들 153명 중 8명(5%)만이 달러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달러보험에 가입한 응답자들은 월가구소득 1,000만원 이상, 총자산 20억이상의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들이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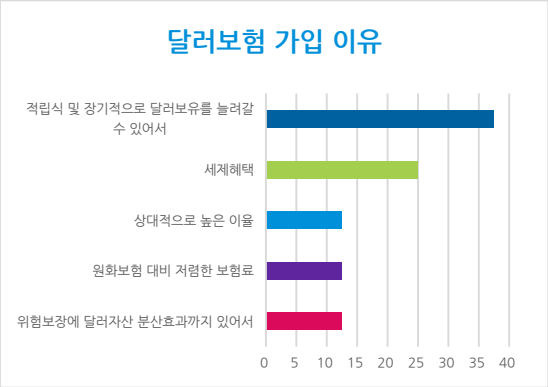
달러보험 가입자들은 '달러보험'의 장점으로 '적립식 및 장기적으로 달러보유를 늘려갈 수 있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세제혜택'을 꼽았다. 그 밖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 '저렴한 보험료', '위험보장에 더해 달러자산 분산효과까지 있어서' 등을 선택했다.

달러보험을 알고 있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달러자산은 보유하고 싶지만 보험상품에 거부감이 있어서'(27.1%)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환율 부담'(22.2%), '잘 몰라서'(20.8%), '왠지 불안해서'(7.6%), '최저 가입금액이 클 것 같아서'(4.2%)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달러보험을 알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달러보험의 특장점을 설명한 후, '달러보험' 가입 의향을 물었을 때 응답자 중 28.0%가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는 앞서 외화 금융자산 취득을 고려하는 응답자 중 단 5%만이 '외화보험' 가입을 고려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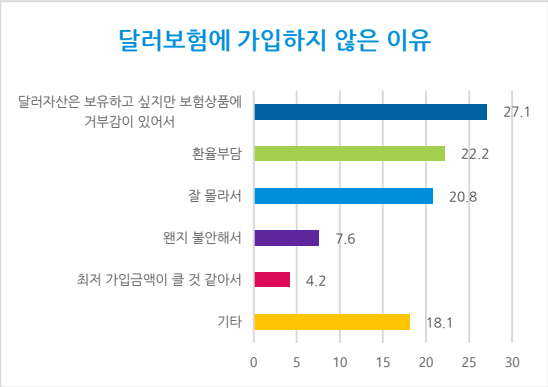
각각의 가계(개인)마다 재무적 상황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유명 금융그룹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니까', 또는 '요즘 가장 유행하는 상품이니까'라는 생각으로 금융상품 취득을 결정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산배분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 시 전체 금융업권의 상품들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접근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주 : 응답자 수(N)=8

(%)



주 : 응답자 수(N)=144